

서울적십자병원-은평요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업무협약

| 필수의료 제공·연계강화, 감염관리 및 지역 안정망 구축 위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2024-05-30 10:43



서울적십자병원(원장 채동완)은 지난 28일 은평요양원(시설장 정다연)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울서북권(마포구·서대문구·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와 건강안정망 강화를 통한 지역 의료·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했다.

양 기관은 협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지역단위 건강관리 협력체계구축,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체계 운영 지원,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 및 편의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다연 시설장은 "서울서북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에서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준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서울적십자병원과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요양원은 2015년 5월 설립한 이후로 2021년, 2022년 두 차례 연속으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좋은돌봄시설로 인증된 바 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2021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 서북권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선정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 사업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 △정신건강 증진 협력사업 ▲예방 및 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2024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

기사작성시간 : 2024-05-30 10:43